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7. 17.(월)

한덕수 총리, 추가 집중호우 대비 긴급지시

-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등 붕괴사고 대비 철저
- 위험지역에 대한 대피명령 전면 발령 및 선제적 대피 실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7일(월)부터 18일(화)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특히 남부지방 일부에선 시간당 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측되고 있어 각종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 6월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인해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하여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위험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실시할 것
- 특히,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산지에 인접한 마을 또는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명령을 전면 발령하고, 산림청,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할 것
- 지자체는 사전대피를 위한 장소 확보, 편의시설 설치,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 | | | |
|-------|----------|-----|------------------------|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신강민 (044-200-2346) |
| | 안전환경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김민수 (044-200-2348) |